은퇴자 출가 · 전통산사 유네스코 '기대 반, 걱정 반'

제도

51세 이상 출가 門 '활짝'

은퇴자 출가 본격 시행

올해부터 51~65세 은퇴자들도 조계종 스님이 될 수 있는 은퇴 출가가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은퇴 출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 증명서와 신상명세서, 건강진단서, 신원확인서 등을 교구본사에 내야 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명서'와 '연금(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가입 증명서 또는 연금 수령 예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수 출가인 만큼 제재 조치도 있다. 실질적으로 속세 관계를 끊지 못했거나, 친권 포기를 하지 않고 이혼 경과기간이 6개월 미만인 행자는 사미 · 사미니계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은퇴출가한 비구, 비구니에 대해서는 견덕, 계덕까지만 법계가 품수되고,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및 말사 주지로 임명하지 않는다. 또한 일체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부여되지 않는다.

성 범계행위 처벌규정 강화될까

지난해는 일부 승려들의 잇단 성 범계행위로 인해 불교 이미지가 훼손되고, 조계종단 내외적으로도 문제제기가 이어진 해였다. 각종 성추문 보도 이후 성평등불교연대 등 NGO단체들은 범계자의 징계에 미흡한 종단 제도를 비판하고, 독신 청정승가를 지킬 수 있는 규범 마련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계종 호법부 역시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담화문을 통해 "범계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회법과는 별개로 종헌종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묻겠다"며 "해당 스님은 일정기간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중앙종회서도 범계행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한 청정승가 구현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사회문제 불교계 목소리 ↑

수행환경 침해, 범불교계 대응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 수행환경침해를 겪는 사찰들의 협의체인 전국전통사찰수호연합회가 최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단체로 등록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각종 수행환경침해 사례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국사찰수호연합회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불교문화재 피해와 수행환경 침해 대책을 강구하는 범종단적 기구다. 민간과 형평성 있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강제수용에 의한 운영손실 보상 등을 통해 삼보정재를 수호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하지만 각종 권력 이해관계 속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대형종단 소속 사찰이 아닌 경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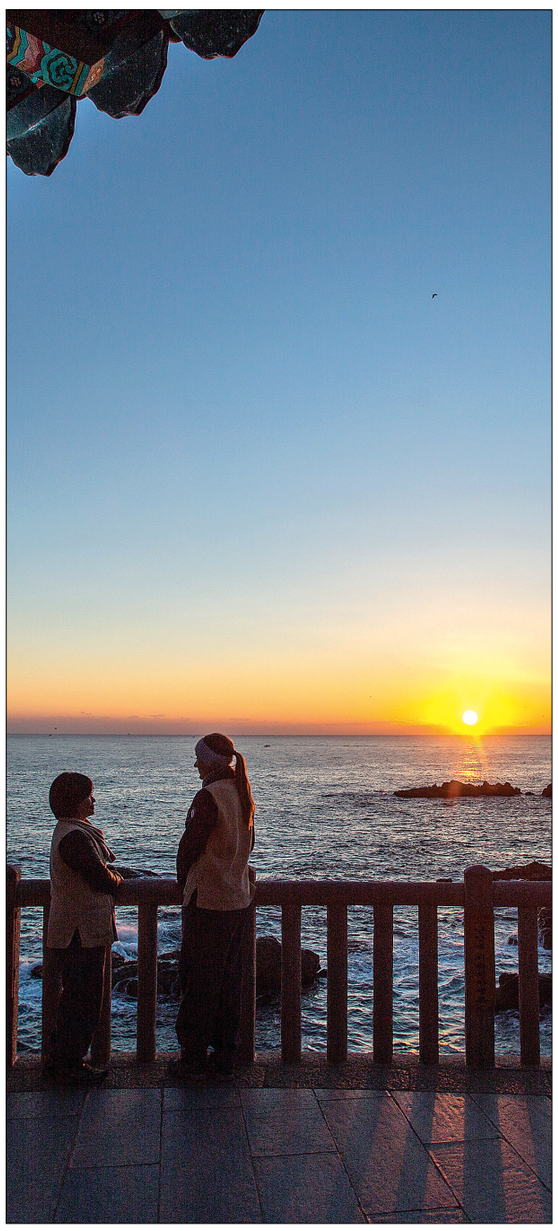
다행히 종단협 산하단체로 등록되면서 행정력이 미흡한 군소종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4.3 등 국가문제 접근

2017년까지의 2기 활동을 준비단계로 평가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2018년을 맞아 3기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대사회문제 해결에 나선다. 특히 제주4.3사태 70주년을 맞아 서울광화문서 위령재를 봉행하는 등 국가 · 사회적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베트남 희생자에게 참회와 반성하는 위령재 · 천도재도 음력 7월 백중에 예정돼있다. 이외에도 위안부 문제,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법회도 개최한다.

최근 사회노동위는 3기 출범과 함께 실천위원 13명을 새로 위촉하고 해인사 기획국장 혜찬 스님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인사를 새로 단행했다. 여기에 종령을 개정해 실천위원의 범위를 넓히고 부위원장도 2명 이상 선출해 보다 폭넓은 사회문제 접근을 예고하기도 했다.

2018 개띠해, 불교계 뭐가 달라지나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무술년 새해에는 출가제도를 비롯해 불교계 대사회 목소리 강화, 전통산사의 유네스코 등재 여부, 교구본사 산하 사회복지법인 확대 등 다양한 분야서 여러 변화상이 예상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1~65세 은퇴자들의 조계종단 출가 문호 개방이다. 출가자 감소에 대응하고, 승가 내 전문인재 활동을 통한 불교발전을 모색한 제도다. 사회적으로는 제주4.3사건에 대한 불교계의 접근이, 문화적으로는 불교계 숙원사업인 전통산사 7곳의 유네스코 등재까지 새해 변화가 기대되는 각종 불교계 소식을 정리했다.

신성민 · 윤호섭 · 박진형 기자

문화

산사 7곳 세계유산 운명은

전통산사 유네스코 등재될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돌아왔다. '한국 전통산사'로 묶인 7곳의 산지 사찰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가 올해 결정된다.

'한국 전통산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2014년부터 시작된 불교계의 숙원 사업이다. 조계종은 2014년 8월 6일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이하 등재추진위)' 발족식을 열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알렸다. 등재 대상 산사는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봉정사, 부석사, 통도사 등 7곳 사찰이다.

등재추진위는 전통산사의 등재를 위해 학술대회 개최와 보고서 발간 등 기민하게 움직여 왔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해 1월 전통산사 7곳의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전통산사 7곳에 대한 유산 등재 결정은 오는 7월 제42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중앙버스차로 설치, 연등회는…

한국불교 최대 축제인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종로 중앙버스차로제 도입에 따라 행사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에 따라 해당구간에서 행사를 펼치는 연등회 백미 연등행렬이 기존처럼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많다.

서울시는 버스정류장을 이동식 정류장으로 설치, 행사에 앞서 정류장을 도로 바깥으로 옮길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도로 통제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정류장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불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류장 이동에 필요한 비용은 행사 주최 측이 지불해야 하는데다 국가예산 증액 요청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 같은 방법으로 행사를 처음 치르는 관계로, 발생 가능한 안전문제를 예상하기 어려워 예년보다 행사 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tc. 기타

풀뿌리 공동체 · 복지 확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20주년

2018년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창립 20주년을 맞는 해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삶의 양식, 문화양식을 총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개인적 수행과 각성을 통한 깨달음을 지향한다. 특히 생명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명살림운동, 도시와 농촌 공동체간 연대를 통한 사회적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귀농학교, 생활협동조합, 대안학교 등을 운영하며 '공존' '협동' '균형'의 가치 확산에 매진해왔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앞서 현재 2가지 핵심키워드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하나는 실상사 산내면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연결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다른 하나는 20년간 쌓아온 경험을 지역에 전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1월 말 정기총회를 열고, 공동체운동의 방향성과 효과 등을 정리하면서 20주년을 준비할 계획이다.

교구본사 사회복지법인 확대

현재 조계종 24개 교구본사 중 산하에 사회복지법인을 둔 사찰은 12곳이다. 여기에 올해는 4개의 교구본사 사회복지법인이 추가돼 16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교구본사 4곳의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지원한다. 해당 교구본사 명단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올해 안에 설립을 모두 마치고, 현재 사회복지법인을 운영 중인 12곳에 대해서도 컨설팅과 행정적 지원, 시설 위탁 등에 관심을 쏟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교구본사 사회복지법인의 추가설립 및 안정화가 불교 사회복지법인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불교계 사회복지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매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24개 교구본사 모두 사회복지법인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는 것이 목표다.

지장불교조계종
팔공총본산 지장선원
총무원장 지공 보명
법회안내
◇신중기도 점찰법회 : 매월 첫째 일요일
◇지장기도 천도법회 : 매월 셋째 일요일
지장보살 원불 영옥봉안 납골당
■ 대구광역시 동구 갓바위로 35 (진인동 234)
TEL 053)986-0151, 983-0152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동 명 사
종정 법운
종도 사부대중 일동
(영남전통 범음 .범패 교육원)
■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복성리 1095)
전화 054)974-2605 / 팩스 054)974-2705

